

2022 겨울호

WOMAU

News

20



목차

2022 겨울호 WoMAU News No. 36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판

WoMAU News는 세계무술연맹(WoMAU)의 활동과 무예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은 아카이브(기록보관소)이자 전통 스포츠 및 게임(TSG)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실용적인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계 무예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본 소식지가 이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4

대표 발언

06

축사

· 20주년기념 축사

08

전문가 칼럼

· 인류미래를 위한 국제NGO로서의 역할과 방향

12

특별 칼럼

· 문화의 보존과 기록,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는 교류사업

15

회원 소식 및 무예계 동향

- 말류다, 인도 전국 무예 경기 종목에 포함
- 대한씨름협회, 어린이 씨름 인형극 뮤지컬 공연 성황리에 마쳐
- 제13회 세계택견대회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
- 싱가포르실랏연맹, NFT 활용 스포츠 콜렉티브 프로젝트 시작
- 필리핀 아르니스 국가대표팀, 세계 아르니스 챔피언십 석권
- 2022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 신규 회원단체 소개
- 회원 단체 행사 소개



08



12



16



19



28



30



32



34

24

무술 콘텐츠

- 타슈켄트 무형문화유산 주간 다큐멘터리

26

유네스코 소식

- 2022 유네스코 체육교육과스포츠 정부간위원회(CIGEPS) 회의 결과
- 제17차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및 무형문화유산 NGO 포럼 결과

30

세계무술연맹 소식

- 제21차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개최
- 2022국제연무대회, 유네스코 Fit for Life와 함께
- 한-우즈베크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성료
- 가족과 함께하는 2022 청소년무예캠프 개최
- 세계무술아카이브 오픈 및 연맹 홈페이지 개편
-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전국규모 무예대회 지원사업 재개

38

안내

- 총회 유치 절차 안내

WoMAU News는 세계무술연맹(WoMAU)이 연 2회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전화 043) 852-7952-8

홈페이지 www.womau.org

발행인 민경창

팩스 043) 853-7341

주소 (27438) 충청북도 충주시 옷갓길73 국제무예센터 2층 세계무술연맹

편집장 전용태

이메일 secretariat@womau.org

편집 김민영

제작 (주)한일기획



정화태

세계무술연맹 총재

세계무술연맹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2일 26개국 28개 단체로 시작한 세계무술연맹은 현재 47개국 70개 회원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공식 파트너십 NGO 지위를 갖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연맹이 창설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맹은 지난 20년간 세계 전통무술 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각 국민들 간의 우의를 존중하고 무술이 갖는 평화와 정의의 가치관을 널리 전파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약정신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고 각국의 전통무술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회원단체 여러분과 대한민국 정부와 충청북도, 충주시 관계자 여러분, 창립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세계무술연맹이 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계무술연맹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밑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UNESCO NGO의 일원으로 무술이 생활에 알맞는 스포츠



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의 “Fit For Life”이니셔티브를 적극 반영하여 무예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유네스코 등재무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전통 스포츠와 게임(Traditional Sports and Games) 사업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간국제기구로서 UNESCO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본 연맹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축하



리차드슨 지알로고

세계무술연맹 부의장 & 필리핀 에스κρι마 칼리 아르니스 수석 코치

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매우 값졌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이 창립 및 결성된 지 20년, 국제무예연무대회가 개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연맹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뒤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연맹 사무국 직원들에게 짧은 인사를 전합니다.

각 나라 고유 무술과 문화를 열정적으로 홍보, 전파, 보존하고 무형문화유산과 보석과도 같은 우리의 전통 무예를 세계무대에 선보이기 위해, 결속을 위한 투지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회원들이 연맹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무대회는 격렬한 경쟁 후,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과 대표자들이 우정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은 모든 국제기구가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과들입니다.

연맹의 많은 성과들 중에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이며, 이를 통해 연맹이 최고의 국제 무술연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무술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모두 턱을 높이 들고 향후 20년 동안 계속 행진합시다! 축하합니다!



김영섭

세계무술연맹 부의장 & 세계기사연맹 의장

세계무술연맹 회원 여러분에게 희망찬 안부 전하며, 세계무술연맹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태초 인류가 탄생하고 자연에서 살아 남기위한 몸짓이 정교하게 다듬어 지고 씨족과 부족의 방어적 목적에 의해 기술적 체계를 갖추어 발전하는게 무예의 정화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장 오랜 전통은 무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가족, 사회, 국가, 인류로 퍼져나가는 신체의 역량을 키워 나감과 동시에 강한 정신건강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성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바로 이런 인류 신체 무형문화유산인 무예의 대표 기구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구성체로 연합하여 이 기구를 발전시킨다면 세계에 꽃피울 신체문화는 우리 다음대에 올곧게 전해져 크게 발전하는 모태가 될 것이며, 이것은 전통문화유산인 무예문화를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세계 무예계의 앞날에 희망찬 도약을 기원하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플랏 우스마노프

세계무술연맹 부의장 & 우즈벡장사나티 연맹 회장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무술연맹 정화태 총재님과 직원 여러분!
 우즈벡장사나티를 대신하여 세계무술연맹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무술과 가치를 보존하고 건강한 생활방식과 다음 세대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키는 데 세계무술연맹의 기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우즈벡장사나티 연맹은 2017년 가입 이후 많은 행사에서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즈벡 장사나티 연맹은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와 행사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을 하나로 묶고 평화, 관용, 세계 시민 문화를 홍보합니다.
 이러한 협력과 세계 무술의 발전 진승에 대한 세계무술연맹의 기여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향후 더 값진 협력을 희망합니다.



에다쉐리 모한 피터스

세계무술연맹 부의장 & 케랄라 깔라리파얏트 아카데미 회장

세계무술연맹이 올해로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매우 기쁩니다. 저는 연맹의 부의장으로서 세계무술연맹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세계무술연맹이 세계 무예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지지를 표합니다.



야육 파드미 라하유

세계무술연맹 부의장 & 펜카실랏 페리사이 푸티 인도네시아 회장

연맹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좋은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밝은 미래와, 지속, 그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조지 레빈

전 세계무술연맹 의장 & 오키치타우 원주민 무술 단체장

세계무술연맹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키치타우 원주민 무술단체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무술연맹이 해온 모든 도전적인 일과 헌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는 세계무술연맹과 전체 임원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전통 무술과 문화 유산을 잘 대표하는 특별한 길을 따라 계속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20년을 마친 이 위대한 기념일에 연맹을 세계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기원하여 우리 모두 세계무술연맹의 업적을 축하합니다!

인류미래를 위한 국제NGO로서의 역할과 방향



허 권

세계무술연맹 이사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 사무총장

연맹의 목적과 미션

세계무술연맹은 전세계 무술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무술분야 최초로 2002년 10월2일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이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세계 47개국 70개 단체회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무술네트워크로 발전해 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무술의 기예와 활동에 관한 정보가 확산되는 무예 플랫폼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연맹은 창설이후 여러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을 중시해 왔다. 특히 교육문화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은 중요한 협력기구이다. 2009년부터 유네스코와 공식파트너십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자문 NGO로 등록함으로써 유네스코와 폭넓은 지적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연맹은 창설된 지 20년 동안 회원단체의 확대, 무술축제 개최 및 지원, 정보 및 인적 교류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회원단체 및 무술인, 충주시, 충청북도 등의 협력과 지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문화생태계의 지각변동과 무술인의 대외적 활동의 위축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무술공동체의 활력이 크게 약화, 침체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 연맹 창설 30주년, 50주년을 맞이 위해서는 현재의 연맹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류평화와 무술인의 활동을 진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술은 우리 인류가 간직해야 할 전통과 유산으로 여러 집단과 지역사회간의 새롭고 깊은 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다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연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가? 연맹의 정체성은 정관



제3조에 잘 명시되어 있다.

“.....세계무술단체가 각 나라 고유의 전통무술을 있어서의 인적 물적 교류 및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전통무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교환·전파하여 평화와 정의의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맹의 모든 공적활동의 궁극적인 미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단결 Bring together for the future of humanity’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나은 미래사회와 서로 존중하고 평화와 우애가 존재하는 미래사회의 건설이야말로 연맹과 같은 국제비정부기구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연맹활동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의 전 과정은 이러한 미션의 절대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회원과 무술인들은 연맹회원간의 우애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건설해가는 주역임을 늘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창설이후 지금까지 연맹의 조직과 활동을 체계화하는데 노력하였다면 앞으로는 지난 20년의 기반 위에 우애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회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맹의 비전방향

무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건전한 사고와 생각은 몸의 건강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술은 자신 뿐 아니라 사람간의 관계를 지키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의의 정의에 머무는 무술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지구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가치있는 도구로 나아가기 희망하고 있다. 즉,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촉진제로,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무술은 점차 동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네스코의가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에 의하면 무예는 ‘공연예술’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고, ‘사회적 관습, 제의, 축제’로, 혹은 ‘자연과 우주와 관련된 지식과 관행’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무예의 다의적 성격은 한 마디로 무예가 오랜 기간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접합되어 진화되어 왔음을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사업방향

오늘날 무술은 스포츠와 체육, 교육, 문화, 산업분야 등 사회의 넓은 분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술에 대한 정의를 한두 가지로 간단히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세계무술연맹의 설립목적에 비춰볼 때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연맹이 수행해야 할 모든 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연맹은 무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신분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 연맹은 무술의 교육적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연맹은 무술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연맹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범지구적 문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연맹은 많은 시민단체와 공동의 협력망,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 연맹은 무예의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

2P2D 실행전략

연맹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함께 하는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를 위한 조직과 사업을 키워 나가야 한다. 위의 연맹의 사업방향을 간략화한다면 2P2D의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 **보호 Preservation** : 무예는 인류가 보호해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 **확산 Dissemination** : 무예의 정신과 기술은 훌륭한 교육의 도구이다.
- **발전 Development** : 무예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 **참여 Participation** : 무예의 정신은 차별없는 인권과 평화를 지향한다.

연맹의 협력파트너 확대

연맹은 더 많은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무술의 다의적인 정의와 함께 인류미래를 위한 공동의 협력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더 많은 기구와 단체와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무예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있는 단체와 정부, 언론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무술인의 건강한 삶, 사회적 책임과 헌신, 무술단체의 공익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발굴하고 이를 동조하는 지원자와 파트너를 발굴해 내야 한다. 유엔의 인권단체, 지역개발단체들의 노력에 동참하고 무술차원에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는 연맹이 되어야겠다.

유네스코 협력

그중의 하나로 유네스코를 들 수 있다. 1945년 11월, 인류의 문화와 교육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공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시타시피 유네스코는 창설이후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 교육자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해온 유엔기구이다. 현재 우리 연맹은 2가지 방향에서 유네스코와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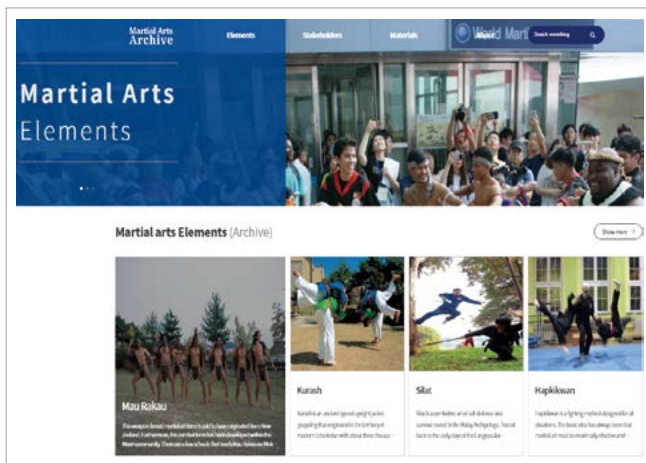
- 공식적 파트너십으로서 자문회원자격의 유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자문 NGO

유네스코는 교육,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각 분야에서 전세계 411개의 NGO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 연맹은 2009년부터 유네스코와 공식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협력관계는 준회원 자격(consultative status)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와 공식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NGO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 여성, 청소년, 문화예술, 언론 등에 관계된 기관이 주가 되며 체육과 무술분야의 단체가 각각 2개씩에 불과해, 연맹이야말로 411개의 많은 NGO중 교육, 문화분야에 걸쳐 무예를 대표하는 거의 유일한 NGO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예인의 권익신장과 발전을 위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연맹은 2010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자문 NGO로 등록함으로써 인류의 오랜 전통양식인 무술의 보호와 진흥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와 함께 세계 무예 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2018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각국의 무예를 보호하기 위해 무술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민간 국제비정부 기구로서 유네스코 이념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국가의 무형유산제도의 발전, 일반인의 의식제고, 무예인의 무형문화유산사업 참여 등 여러 방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연맹은 무술의 교육과 유산적의 성격을 감안하여 유네스코의 각종 프로그램 실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위의 무형문화유산 사업 뿐 아니라 유네스코의 교육, 사회과학 분야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초교육, 성인교육, 체육교육, 청소년교육 등의 영역, 그리고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통합사업 등 여러 프로그램 부서들과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의 유네스코위원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과 같은 카테고리 II센터, 유네스코 클럽 및 협력학교, 유네스코 협력 NGO 등 여러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연맹의 고유 미션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비정부기구로서 연맹의 미션이 빛을 발하기 위해 이에 소속된 단체, 협력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또 다른 연맹의 30주년을 기대해 본다.





문화의 보존과 기록,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는 교류 사업



정흥식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사무총장
前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 의장
제5대 안동시의회 의원

경상북도 안동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International Mask Arts & Culture Organization, 이하 IMACO)은 국보 하회탈과 하회별신굿탈놀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하회별신굿을 모태로 한 대동형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탄생과 성공 이후 탈 문화의 보전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세계화 발전 전략에 따라 2006년 24개국의 동의를 얻어 설립되었다.

탈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인류 보편의 문화이자 다양성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문화 집약체이며, 개인, 마을, 국가, 범 문화권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지닌 특별한 문화이다. 이 점에서 탈을 이해하는 방식은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 및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춤은 모든 문화권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다. 탈은 문화를 담아내고, 탈춤은 문화를 표현한다. 세계 곳곳의 탈은 그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고 있으며 그들

이 추는 춤은 지역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에 탈은 해당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IMACO는 탈의 연구, 보존, 자료 집적을 통해 탈에 내재된 의미 파악에 매진하였으며, 탈을 통해 인간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15년 간 IMACO는 세계 탈 및 상징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전문가, 연구자, 박물관, 공공기관, 연희자, 문화기획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22년 현재 60개국 200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IMACO와 함께 세계 탈 문화의 보존과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계 탈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MACO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탈 문화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미래 세대로 온전히 전승시키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창립 이후 매년 탈과 상징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가며 탈 문화 자료를 축적하고 탈과 연관된 문화 가치를 집적하는 조사와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탈 문화가 번성할 지역이나, 유실될 위험이 큰 지역을 우선으로 찾아 세계 총회를 개최해가며 해당 지역 탈 문화 보존에 앞장서고, 가치 전파에 힘쓰고 있다. 향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탈 문화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탈 문화를 '지도'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모두 집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IMACO가 세계 탈 문화의 플랫폼으로서 메카이자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기구로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 '세계 탈 문화 지도' 사업은 탈을 통해 인류문화의 축적된 인지 가치와 지향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난 2015년, 유엔 제70차 총회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유엔과 국제사회의 핵심 목표로 채택하게 된다. 이에 유엔 전문기구 중 유일하게 문화 분야를 다루는 유네스코에서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문화적 자산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더 구체적이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길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IMACO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전통 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사점은 전통 무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이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었다. 세계화는 생존과 지속가능한 공동변영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통을 보존하되 종목의 내실을 다지고 대중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두 번째 제안은 전통 무술공동체 간 교류와 협력의 강화이다. 국제교류와 협력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해 주는 유용한 발전전략 중 하나이다. 국제교류의 정의를 살펴보면 경제·인종·민족·종교·언어·체제·이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 주체 상호 간에 추진하는 상생적 협력관계를 말한다. 세계가 통합되는 새로운 변화과정 속에서 각 사회가 직면하거나 공동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 및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의 강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가치 실천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전개하는 쌍방향 국제교류는 단체·국가간 우호 증진은 물론, 무예의 근본 정신인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킬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 제안은 무술의 문화 산업적 활용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경향을 살펴보면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전형 보존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통문화를 보존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활용 가치 나아가 문화산업자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무술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발전해 온 가장 오래된 유산 중의 하나이다. 끊임 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건전한 정신과 신체 발달에 기여해왔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 온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지향해온 핵심 가치, 오랜 역사속에서 지켜온 의지가 무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전통 무예의 어떤점에 주목하고, 무엇을 추출하는가에 따라서 산업의 가치는 다양하고 높아진다. 과도한 상업화로 치우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문화와 산업의 융합은 현대사회에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고,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매우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담론으로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과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가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목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무예가 인류문화의 창달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잡이가 되길 기원한다.





말류다, 인도 전국 무예 경기 종목에 포함

2022년 연차총회에서 신규 정회원으로 승인된 국제 말류다 연맹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인도 델리에서 열리는 2022년 전국 무술대회에 말류다가 경기 종목으로 포함되었다.

이 대회는 인도 전국에서 약 200명의 레슬링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022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델리 탈카 토라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인도 고대무술 레슬링인 '말류다'는 처음으로 포함되어 경기를 치렀다.

한편, '말류다'는 인도와 바하바라타나 라마야나 및 다른 인도 문헌에서도 발견된 무예로,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무술이다.





대한씨름협회, 어린이 씨름 인형극 뮤지컬 공연 성황리에 마쳐

대한씨름협회(황경수 회장)는 '2022 씨름 국제교류 및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어린이 씨름 인형극 뮤지컬이 40회의 전국 순회 공연을 통해 약 8천명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씨름의 홍보를 위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으로 씨름 인형극 뮤지컬을 공연하여 어릴 때부터 씨름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기획되었다.

대한씨름협회는 이 공연이 어린이들에게 씨름의 의의와 장점을 알리고, 씨름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으며, 더 나아가 씨름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전통놀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름 인형극 뮤지컬은 뮤지컬 제작 및 공연 전문 단체인 '문화팩토리 마굿간'이 참여하여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나리오로 제작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더불어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공연을 위해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씨름체험 등 배우와 어린이들이 하나 되어 씨름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실제로 관람 이후 생소했던 씨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져 유치원에서 직접 경기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건강한 놀이가 자리매김하여 유아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담당 교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한씨름협회는 향후 공연 횟수 확대와 씨름 기술의 경험 및 체험 요청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씨름을 더 깊게 배워볼 수 있는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제13회 세계택견대회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

24개국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제13회 세계택견대회가 10월 15일부터 2일간 충주시 국제무예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행사였으며, 예선전을 거쳐 26개국 100여명의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해외에서 입국한 선수들 중 한 명은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예선전에서 부상을 입어도 결선에 진출해 꼭 메달을 고국으로 가져갈 것'이라며 최종 순위에 입상하여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한국택견협회 문대식 총재는 '10년 가까이 세계택견대회를 열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아직도 많으며, 택견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지도자 파견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실랏연맹, NFT 활용 스포츠 콜렉티브 프로젝트 시작

연맹 회원이자 국제펜카실랏연맹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싱가포르 실랏연맹이 올해 스포츠 콜렉티브 사업을 시작하였다. 싱가포르 실랏연맹 대표인 Dr.Sheik 씨와 컨설팅 전문가인 Alfred Lye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 플랫폼은, 스포츠와 블록체인의 산업과의 연결을 통해 싱가포르 팬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큐레이팅한 NFT(대체불가능 토큰)를 보유할 수 있는 곳으로서 내년 2월 중순에 출시 예정이다.

이 사업은 수입을 창출하고 선수들과 팬들 사이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더불어 슈퍼 팬 배지, 상징적 스포츠 순간, 선수들의 초상화 등과 같은 형태로 NFT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 콜렉티브에 가입한 선수들 중에는 세익 파한, 세익 페르두스, 누를 수하일라와 같은 세계 챔피언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 아르니스 국가대표팀, 세계 아르니스 챔피언십 석권

연맹 부의장인 리차드슨 지알로고가 수석 코치로 있는 필리핀 아르니스 국가 대표팀이 제16회 세계 아르니스 연맹 세계 챔피언 대회(2022년 7월 17일~21일)에서 금메달 38개, 은메달 31개, 9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미국, 한국, 인도, 영국, 포르투갈 등 8개 국가 선수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세부 만다우에 시 문화스포츠관에서 부대행사와 같이 개최되었다.

한편, 부대행사로 개최된 세계 아르니스 총회에서는 아르니스 경기 규칙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리차드슨 지알로고 연맹 부의장이 세계 아르니스 연맹 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2022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충주 국제무예센터에서 5일간 12개 종목 107개국 5,000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하였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온라인 대회와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여 하이브리드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부대행사로 국제무예산업페어와 WMC 컨벤션이 개최되었다.

행사 기간 중 태권도, 무에타이, 크라쉬, 검도, 연무 등 12개의 정식 종목과 e-마살아츠(철권), WMC 쿤과 같은 2개의 스페셜 이벤트가 생중계되었으며,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승인 종목 종합 1위는 필리핀, 2위 한국, 3위는 홍콩이 각각 차지하였으며,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비승인 종목으로 종합 1위는 한국, 2위 필리핀, 3위는 이란이 차지하였다.

한편, 세계무예마스터십은 2023년 9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23 울란바토르 세계 청소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 회원단체 소개

제21차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에서 총 3개 회원단체가 연맹의 회원으로 승인되었다.

당초 인도, 프랑스,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 총 9개국 13개 단체가 연맹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 2개, 준회원 1개 단체가 연차총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승인 결정되었다.

승인된 2개 정회원 단체는 인도의 전통무술(레슬링)인 말류다를 대표하는 국제말류다 연맹과 대한민국의 국궁(활쏘기)을 대표하는 대한궁도협회이며, 준회원으로 승인된 합투기무술협회는 칠레의 합투기 무술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구분	단체명	무술	국가
정회원	국제말류다연맹	말류다	인도
	대한궁도협회	활쏘기	대한민국
준회원	합투기무술협회	합투기무술	칠레

세계무술연맹은 이번 신규 단체를 포함하여 총 47개국 70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과 협력을 기대해본다.



회원 단체 행사 소개

01

제59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

2022년 7월 21일~27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

주관 | 대한씨름협회

02

제19회 2022 세계펜각실랏 챔피언십

2022년 7월 26일~31일
말레이시아 멜라카

주관 | 국제펜각실랏연맹

03

불캄포 - 무한도전

2022년 10월 10일~13일
포르투갈 알부페이라 및 파로

주관 | 불가리아캄포연맹

04

제13회 세계택견대회

2022년 10월 15일~16일
대한민국 충주

주관 | 한국택견협회

05

제28회 2022 전국 주니어 탕타 챔피언십

2022년 12월 1일~3일
인도 마니푸르 주

주관 | 세계탕타연맹

06

2022 우즈벡 장사나티 회장 배 대회

2022년 12월 23일~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티

주관 | 우즈벡장사나티연맹

07

제28회 2022 전국 서브 주니어 및 시니어 탕타 챔피언십

2023년 2월 1일~3일
인도 타밀나두 주

주관 | 세계탕타연맹

08

2023 우즈벡 장사나티 챔피언십

2023년 3월
우즈베키스탄 히바

주관 | 우즈벡장사나티연맹



타슈켄트 무형문화유산 주간 다큐멘터리

- 실�크로드에 꽃피는 우리 문화유산 -

2022년 제작된 이 영상은 세계무술연맹이 지역문화국제교류 지원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대에서 일주일 간 진행된 ‘타슈켄트 무형문화유산 주간’ 사업의 준비와 행사 내용을 담은 약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이다.

한국 충주시의 지역무형문화유산인 전통무예 ‘택견’과 전통음악 ‘우륵국악’,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예 ‘장사나티’와 전통음악 ‘샤쉬마콧’을 콘텐츠로 양국의 대표 단체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대에서 합동공연, 사진 전시회, 워크숍 및 강습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뒷 이야기까지 행사 전반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쌍방향 국제교류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공유가 가지는 의미를 잘 담고 있다.

또,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양국 무형문화유산 이수자들 간 소통,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는 과정은 국제교류의 의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3년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출품 예정이며, 사전 관람을 원할 경우 세계무술연맹 사무국(minyeong@womau.org)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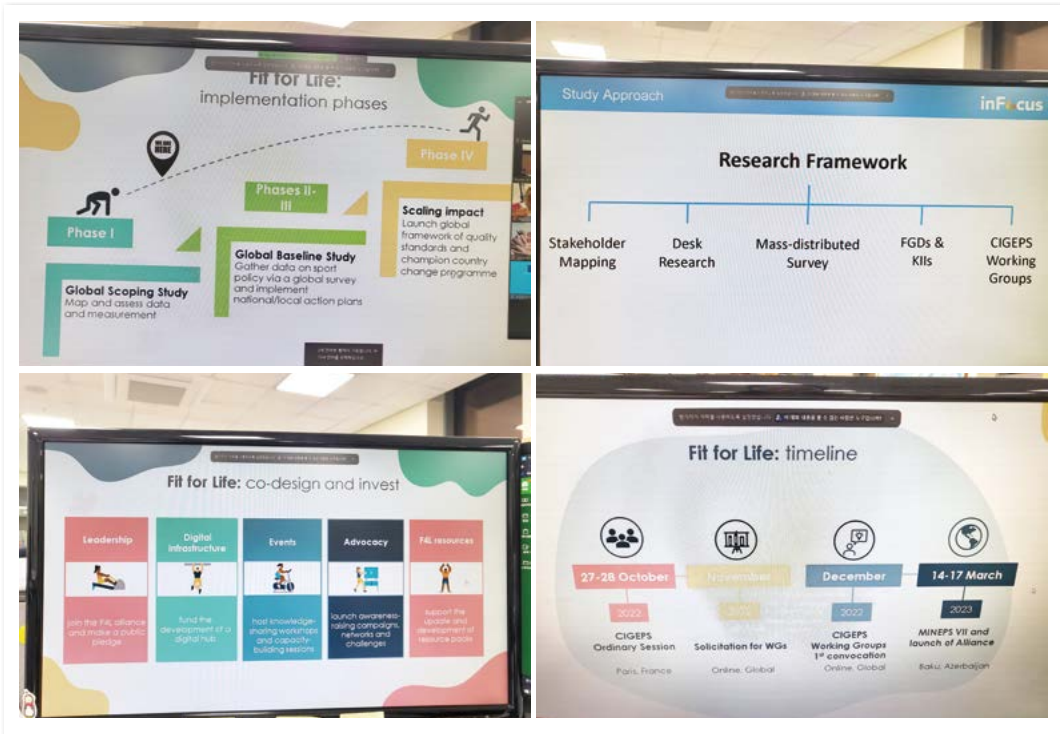




2022 유네스코 체육교육과스포츠 정부간위원회(CIGEPS) 회의 결과

2022년 유네스코 체육교육과 스포츠 정부간위원회 정기 회의가 10월 2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으로 3월 예정된 제7차 체육교육과 스포츠 장관 및 고위공무원 회의(MINEPS) 회의 준비,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보는 코로나19이후 스포츠 현황, CIGEPS 워킹그룹 설립, 도핑 반대 국제 협약 관련 카잔액션플랜(KAP)의 항목 3 최신화 등이 논의 되었으며, 유네스코 CIGEPS 사무국에서는 2023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될 제7차 체육교육과 스포츠 장관급 회의(MINEPS VII) 프로그램과 Fit for Life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제7차 MINESEP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 포럼 및 장관급 토론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Fit for Life 이행을 위한 단계별 절차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자료와 측정 평가 및 지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Fit for Life 런칭에 따라 스포츠 카운트(Sport Count), 스포츠 케어(Sport Cares) 2개 워킹그룹 신설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워킹그룹 첫 회의는 올해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다.

한편, 연맹은 2009년에 유네스코 공식협력관계 NGO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유네스코체육교육및스포츠 정부간위원회 정관이 변경되면서 CIGEPS 상임자문기구 지위를 획득하였다.





제17차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및 무형문화유산 NGO 포럼 결과

주유네스코 모로코 왕국 대표부 대사 H.E. Samir Addahre 가 의장을 맡은 17차 정부간위원회 회의(모로코 라밧, 11월 28일~12월 3일)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9건, 긴급보호목록 4건, 모범사례 4건이 등재되었으며, 그 외 등재 대표목록에 대한 협약 이행 정기 보고, 기금 이슈 및 협약 제18조 이행 관련 고찰 최신화 의제가 심의 및 검토되었다.

2022년 등재된 대표목록 중에는 캄보디아의 전통무술 보카토와, 아제르바이잔의 팔라바니 문화(전통주르카네 경기, 스포츠와 레슬링)가 전통무술 또는 스포츠 관련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당초 심사기구(Evaluation Body)가 '협약 제 2조에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여 어느 한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독일의 현대무용(Modern dance)이 다수 위원국의 지시로 '독일의 현대 무용 관행(The practice of Modern Dance in Germany)'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이는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해석, 등재기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동 기간 개최된 NGO 포럼은 심포지엄 및 다수의 워킹그룹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총회에서는 새로운 3명의 임원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임원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키르키즈스탄의 Cholponai USUBAL-

IEVA(ACRC), 서유럽 및 북미 그룹의 핀란드 Matti HAKAMAKI(Finnish Folk Music Institute), 국제 그룹의 네덜란드의 Robert BARON(International Society for Ethnology and Folklore) 이다.

또, 현재 ICH NGO 포럼의 리서치 워킹그룹은 유네스코 당사국 및 무형문화유산 사무국과 NGO Forum 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며, 기후 변화와 같은 주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담당자가 첨언한 것처럼 요즘 시기에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며, 무형문화유산의 관광화와 상업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요청이 많은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NGO 포럼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리서치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주제의 세분화 또는 다른 주제와의 결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제18차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는 아프리카 보츠와나 가보로네에서 2023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개최 예정이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조: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 표상 · 표현 · 지식 · 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 물품 · 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함. 세대가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함.





제21차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개최

제21차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가 지난 11월 18일,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총재 정화태)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제21차 연차총회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총회로 총25개국 31개 단체에서 30여명의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했다. 총회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에서 세계무술연맹 정화태 총재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세계무술연맹의 탄생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신 소병용 전 총재님과 이시중 명예총재님께 감사드린다”며, “세계무술연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단체의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유네스코 공식 파트너십 NGO로서 유네스코 정책에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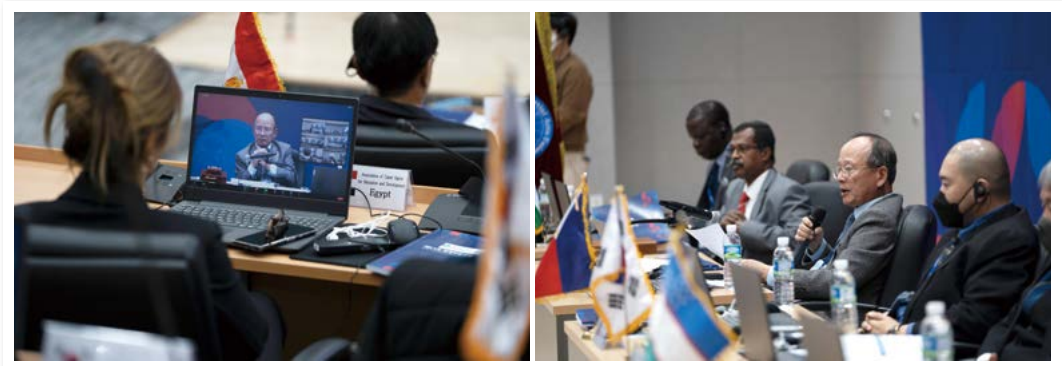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 선출, 신규회원단체 가입 심사(13개), 회원단체 활동 보고, 기타 현안토의, 차기 총회 개최시기 및 장소 등을 의결했다.

현 의장 정화태는 만장일치의 지지로 연임하게 되었으며, 현 부의장 인도 케랄라 칼라리파야트 아카데미의 Mohan Peters Edachery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장사나티연맹의 Pulat Usmanov도 과반의 득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이들 3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3년간의 임기를 가진다.

또한,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동의하여 정회원 2개 단체(한국 대한궁도협회, 인도 국제말류다연맹), 준회원 1개 단체(칠레 합투기무술협회)를 승인했다.

차기 총회 개최시기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네스코등재무술진흥위원회 및 총회 개최 의사를 밝힌 회원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다른 회원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사무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하였다.





2022국제연무대회, 유네스코 Fit for Life와 함께

2022. 11.19.(토) 부터 11.20.(일)까지 “무예와 함께 청소년의 삶을 건강하고 평등하게” 를 주제로 2세대 국제연무대회가 개최되었다.

총10개국 645명이 참가한 2세대 국제연무대회는 기존의 연무대회와 더불어 연무(鍊武 : 무예수련)가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끼치는 효과를 데이터화하는 청소년 무예체력 인증경연과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무예데이터리 도입이 핵심이며, 유네스코의 Fit for Life 정책과 무예를 접목해 개최된 최초의 사업이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일정 주기로 체질량(BMI) 정보 또는 국민체력100 결과와 「청소년무예체력인증경연」결과정보를 무예데이터리에 스스로 기입하고 관리하게하여 무예수련을 통해 개선되는 청소년의 체력을 객관화하고 이를 각국에 보급하는 것이 지향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무예데이터리에 기록된 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 방안은 특허 출원[10-2022-0141361/개인 체력정보 및 스포츠 활동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체력관리 시스템]되었고, 무예데이터리도 저작권 출원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코로나19 이후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체력저하 및 비만 문제 등 극복을 위한 인식이 국가단위 또는 국제 사회 차원에서 늘고 있으며, 관련 정책 개발에도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와 세계무술연맹이 무예를 매개체로 연대하여 개발한 이 대회가 각국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2023년 대회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3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7차 MINEPS(유네스코 체육교육 및 스포츠 고위 장관급 회의) 회의에서 유네스코 Fit for Life 정책의 일환으로 본 대회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한-우즈벡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성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대한민국 충주의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행사인 「타슈켄트 무형문화유산 주간」 행사가 중앙아시아의 진주,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대에서 2022.8.29.(월) 부터 2022.9.4.(일) 까지 합동공연, 워크숍, 사진전시회, 강습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한국택견협회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 장사나티 연맹과 국립 소그디아나 오케스트라가 양국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8월 30일과 9월 1일 각각 수도타슈켄트 알리셰르나보이대극장과 타슈켄트 주 누라프산 시 청소년 센터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공연 및 합동공연은 우즈베키스탄 시민들로 500석이 가득했으며, 양국의 공연단은 공연에 이어 사진 전시회, 워크숍 및 강습회를 통해 서로 하나 되어 뜨거운 우의를 다졌다.

또,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세계무술연맹과 우즈벡장사나티연맹, 세계민족스포츠협회가 양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및 협력 증진에 관한 MOU를 체결,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과 우즈베키스탄 독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무형문화유산 간의 교류사업을 기획한 무형문화유산 분야 자문 NGO인 (사)세계무술연맹은 지난 5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행사를 준비하였다.

(사)세계무술연맹은 본 행사를 통해 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쌍방향 국제교류를 정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같은 국제교류 활동의 지속적 확대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등 각국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47개국 70개 단체 등과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2022 청소년 무예캠프 개최



연맹은 11월 12일(토) 부터 연맹 사무국 소재지인 충주에서 「2022 청소년 무예캠프」 개최, 전국 각지에서 모집 정원의 3배수에 달할 만큼의 참가 희망자들이 지원한 가운데, 특별 강사들의 강의와 각종 무예관련 가족 체험 콘텐츠로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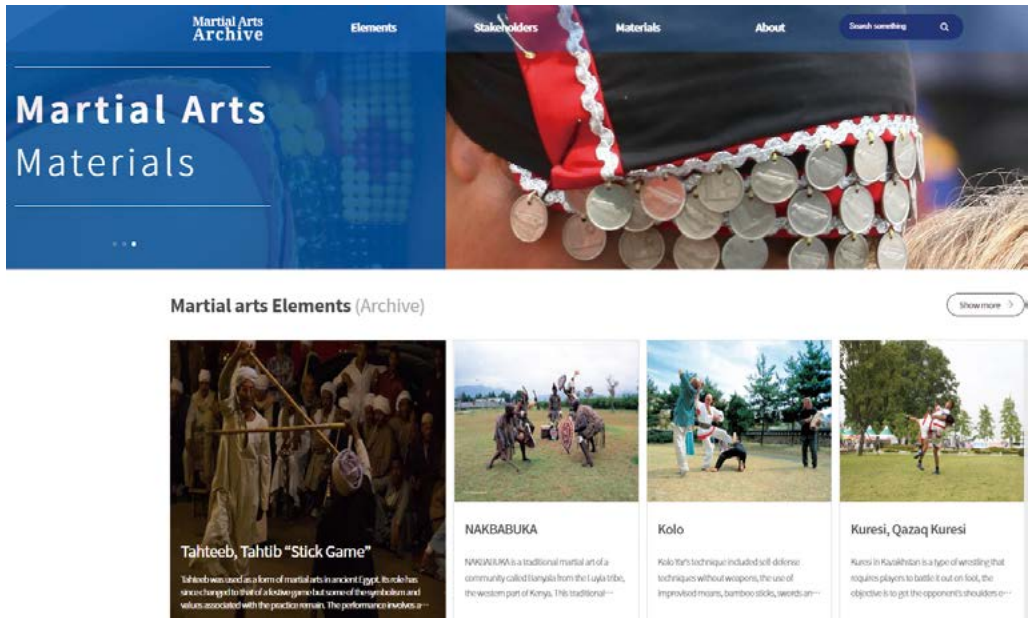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주최하고 연맹이 주관하는 전통무예진흥 전국단위 사업 중 하나로, “무예를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과 가족화합의 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11월 주말마다 총3회에 걸쳐 가족단위 참가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어 총85가족 298명이 참가했다.

1일차에는 특별강사인 강철부대 최영재, 더솔저스 이창준, 나비요가 양하정의 강연을 포함한 무예체험(택견, 활쏘기), 무예의 밤(레크레이션), 가족의 시간(장작불과 별) 프로그램, 2일차에는 지역문화체험, 무예역사체험 순으로 구성되었다.

연맹 정화태 총재는 “아이와 부모 간 소통부재를 무예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번 캠프처럼, 온 가족이 무예를 통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올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 후년까지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본 페이지 QR코드를 통해, 본 행사의 사진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무술아카이브 오픈 및 연맹 홈페이지 개편



세계무술연맹(총재 정화태 / 이하 연맹)은 수집된 각국의 무술정보 및 각종 관련사업의 체계적 기록·공유·활용 등 유네스코 공식 파트너십 NGO로서의 의무이행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무술아카이브를 운영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①무술관련 자료의 수집 / 데이터화, ②무술관련 정보 공유, ③이용자 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검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세계무술아카이브 베타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정화태 총재는 “지난 20년간의 연맹 활동과 그 결과물들이 현재 베타서비스 중인 무술아카이브와 함께, 개편 중인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길 바란다.” 며 “더 나아가 각국 무술정보의 집적(集積), 무술 플랫폼으로서의 연맹의 역할강화를 통해 무술의 긍정적 가치 확산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세계무술아카이브(<https://martialarts-archive.org>)는 지정된 사용자가 편집이 가능한 자료실로, 수정 및 게시를 위한 권한 신청 등 문의사항은 연맹 사무국(sangun@womau.org)을 통해 가능하다.

충주시·세계무술연맹, 전국규모 무예대회 지원사업 재개

충주시가 주최하는 「전국단위무예행사 유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단되었다가 약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세계무술연맹사무국은 금년 7월 공모를 통해 (사)대한용무도협회의 「2022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용무도대회」와 (사)대한태기도협회의 「2022 충주오픈 세계태기(한국형합기도) 챌린지 대회」 총 두 개의 전국규모 무예대회를 선정하였고 각각 예산을 지원하였다.

9월 24일(토)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열린 「2022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용무도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국내 용무도 대회 행사 가운데 규모와 관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대회로 본 대회에는 선수, 관람객 및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500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용인대 총장기 대회인 만큼 용인대학교 동양무예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많은 입시생이 선수로 참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월 12일(토) 동일 장소에서 개최된 「2022 충주오픈 세계태기(한국형합기도) 챌린지 대회」는 선수, 관람객 및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500명이 참여하였고 기록, 연무경기 등의 종목에서 “팀 신화를 이루다” 체육관이 종합 우승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 사업은 전국규모의 무예 대회, 세미나, 강습회, 교류전 등을 충주에 유치하여 체육진흥, 지역의 문화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총회 유치 절차 안내

총회 유치 신청 과정 및 진행

1. 총회 유치 신청 방식

유치 의사를 표명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의향서를 받아 1개 국가를 선정

- ① 공식 제안서(Bidding Document) * 연맹 신청서 양식
- ② 비공식 제안서(서신 형태) * 연맹 사무국(공식)에 제출

2. 유치의향서(신청서) 제출

- ① 주관 단체장 명의 서신
- ② 주관 단체 개요
- ③ 행사 추진 계획 및 예산(안)
- ④ 양식(붙임 참조)

3. 현장 답사(연맹)

4. 개최지 결정

- ① 결정 방법 : 합의 또는 투표 등 상황에 맞게 결정
 - 합의의 경우 : 개최지 결정을 위한 회의 직전 공식 행사(환영 연회장, 개막, 커피브레이크 사교 행사 등에서 경쟁 단체들과 연맹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유치 가능 단체를 판단, 조건(재정부담, 교통, 관광지 등) 상 불리한 쪽이 양보
 - 합의 부결 : 개최지 결정 연기

5. 전담반 구성

총회 유치 단체가 개최국으로 결정되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개최 준비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한다. 특수한 경우나 사무 업무가 과중한 경우, 그밖의 이유로 조직위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회의 전문 용역업체(PCO)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6. 총회 유치 과정 흐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치 가능 단체 발굴 또는 유치 단체 의향 표명	유치신청서 제출	현장답사	프리젠테이션

7. 총회 유치 기관의 진행 절차

- ① 기관의 유치 의사 확정
 - 예산 확보 가능성 확인
 - 인력 확보 점검
- ② 지원 가능한 정부 기관과 유치 협의 결정(domestic agreement)
 - 정부 차원에서 회의 개최 사전 준비 사항 점검
- ③ 연맹 사무국에 개최 신청서 제공(bidding) * 양식 : 연맹 사무국 제공
- ④ 회의 시설 답사팀 안내(site inspection)
 - 회의 시설 소개
- ⑤ 공식 제의(official invitation)
 - 개최 의사 확인

- 참가 대표 비자 발급 서약
- ⑥ 개최지 결정(voting)
- ⑦ 개최지 확인 공식 서한 접수(confirmation)
- ⑧ 전담반(host committee) 구성
 - 회의 준비를 위한 업무

8. 연맹 사무국의 총회 개최 준비

<당해 연도 개최 지원>

- ① 회의 참가자 정보 및 행사 준비 관련 자문 제공
- ② 회의 문서 준비
- ③ 등록 데스크 운영
- ④ 회의 운영(본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세미나, 유네스코 등재 미술단체 회의)
- ⑤ 한-영 동시통역 ※ 항공료·오찬비 등은 협의에 따름

9. 총회 유치단체 단계별 추진 일정표

① 전체 Flow

유치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
유치 방침 결정 → 유치신청서 작성 → 유치 신청 → 유치 활동 → 유치 결정	준비위원회 결성 → PCO 선정 → 추정 예산안 작성 → 장소 선정 → 등록 정책 수립 → 세부 계획 수립 (등록, 숙박, 학술 프로 그램, 사교 행사, 인쇄 및 출판, 관광, 수송, 인 력 운용, 홍보, 예산 등)	연맹 사무국이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및 지원	정산 → 평가 → 결과 보고

※ 연맹 총회 해외 유치 근거 : 연맹 정관 제4장(총회) 제21조 ② “총회는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주세계미술축제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연맹 회원국에서 유치를 희망할 경우 동회원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근거한다.

세계미술연맹 총회 추진 체계

■ 사업 분담

① 사무국

- 총회 운영 총괄 및 통합 관리,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유치 주체와 긴밀히 공조
- 총회 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
- 총회 본회의 운영
- 참가자 초청 및 인원 확정하여 유치단체에 제공 이후 유치단체 조직위원회와 참가 단체 간 초청 추진 메일은 CC를 통해 공유하고 필요시 지원 및 본회의 프로그램 운영

② 총회 주관 기관

- 문화탐방 기획, 진행
- 숙박, 오/만찬 등 운영
 - * 오찬은 협의를 통해 결정
- 비자 발급 등 총회 참석자 입국 지원

2022 겨울호
WOMAU
News



전화 043) 852-7952~8 팩스 043) 853-7341 www.womau.org
(27438) 충청북도 충주시 옷갓길73 국제무예센터 2층 세계무술연맹